

거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실형 운이 좋다 해도, 태양 아래에서 작업할 기회를 얻지는 못한다. 피터 비어드의 일생은 그런 순간들로 점철되어 있다. 사진작가이며 아티스트이고 환경을 동기이자 연인이기도 또 플레이 보이이기도 한 그는 최후의 위대한 탐험 가일 것이다. 약이에게 다가가고 밧줄을 날려 코뿔소를 포획하고, 뒷을 놓은 밀렵꾼으로 오해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으며 사자에게 쫓기고 코끼리에게 받쳐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그는 부상으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출혈이 너무 심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그곳에 다시 가볼 수 있을까?" 목숨을 잃을 상황을 자처하고는 가까스로 위험을 벗어나는 습관은 비어드 신화를 만들어냈다.

피터 비어드가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프리카 케냐 근처에 자리잡았던 시기는 1961년 무렵이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유명한 카렌 블릭센(Karen Blixen)의 작품을 통해 케냐에 푹 빠진 그는 그녀를 쫓아 아프리카로 갔고 그곳에서 자연의 잔혹성과 드라마틱한 하늘 아래 벌어지는 은총을 목격했다. 그곳은 잃어버린 낙원이었다. 비어드는 즉각 그곳이 자신이 속할 곳이라고 확신하고 숲 속에 40에이커의 땅을 구입했다. 그곳은 블릭센이 소유했던 커피 플랜테이션 농장에 접해 있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묘사된 곳이기도 하다. 그는 텐트를 세우고 자신의 거주지를 '호그 랜치(Hog Ranch)'라고 이름 붙였다. 그때는 이미 흑멧돼지 떼가 그곳에 자리를 잡은 이후였다. 그는 지역 주민과 야생동물들에 둘러싸여 살았고, 그들의 존재는 그의 사진과 일기와 콜라주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트루먼 카포티는 살아 있는 전설 비어드를 "반은 타잔이고 반은 바이런"이라고 묘사했다. 비어드는 그의 작품만큼이나 야성적이고 휘몰아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프란시스 베이컨과 살바도르 달리에 의해 색깔을 얻었고, 롤링 스톤스와 어울러 다니면서 수백 명의 전 세계

미녀들을 필름에 담고 잠을 잤으며, 샌틴 형무소에서 카포티와 함께 맨슨 가족을 인터뷰했고, 앤디 워홀과 함께 콜라주를 창조했다. 콜라주들은 모두 흡과 동물의 피와 죽은 동물의 내장 등을 풍기고 섞고 깃털, 각테일 스틱, 신문 조각들을 어지럽게 혼합해놓은 작품들이다. 미국 <보그>의 패션 사진작가이던 그는 베르슈가 같은 60년대의 전설적인 얼굴들을 아프리카로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소말리아의 슈퍼모델 이만(현재 데이비드 보위와 결혼)과 같은, 아프리카 숲에서 전으로 겨우 몸을 가리고 염소 매들과 함께 있던 모델들을 발굴해냈다.

런던의 한 시크한 갤러리의 오프닝 밤에 우리가 만났을 때 비어드는 망명한 황제처럼 그를 둘러싼 컬렉터들과 중복들을 알현하고 있었다. 푸금푸금한 셔츠에 치도 렌즈를 입고 한 손에는 담배를 한 손에는 맥주를 들고 있는 그는 전혀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무뚝뚝한 르네상스 남성이었다. 그가 사진을 찍은 멋진 여성들이나 그 야성적인 삶처럼 그는 매 순간 이국적이고 우아하게 보였다. 스타를 동경하는 여자들이 둘러싸여 플래시의 빛 속에 있는 그를 보면서 나는 그에게서 록스타 같은 면을 볼 수 있었다. "농담하는 건가?" 그는 눈썹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사실 나는 알고보면 평생 제대로 된 일자라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는 불쌍한 남자입니다. 언제나 먹고 살려고 일을 구해야 하는 생활이었으니까. 나는 사진들을 기생충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죠. 사진작가는 대단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72년도에 게이들의 나폴레옹인 트루먼 카포티와 함께 롤링 스톤스의 투어를 따라다닐 때는 정말 멋졌지만."

나는 수년 전에 롤링 스톤스가 사운드 트랙을 제공했던 그의 뉴욕 쇼에서 인터뷰를 했었다는 말을 건넸다. "그런가요? 스톤스는 정말 세상에서 최고 밴드지.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었죠?" 재미있다는 듯 호기심을 보이며 그가 물었다. 아마도 동물들 이야기, 그리고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워진다

# INTO THE WILD

트루먼 카포티가 '반은 타잔이고, 반은 바이런'이라고 묘사한 우리 시대의 살아 있는 전설, 피터 비어드(Peter Beard). 무려 30년 동안이나 하루도 쉬 없이 아프리카를 탐험한 모험가이고 사진작가이며 재담꾼인 피터 비어드가 아프리카의 사라져가는 야생 지역과 동물들에 대해 말을 꺼냈다. 글/ Britt Collins

원도/서

김라고 원숭이의 함께 찍은 피터 비어드의 셀프 포트레이트, 1966년







이기도 하다. 비어드는 '인간들은 구원할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사전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파크 에비뉴에서 성장했고 의학을 공부하려 예일대에 갔던 인물이다.

도시의 생활과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이 지루해서 그는 모험을 찾아 아프리카로 갔다. "나는 사실 일종의 도피주의자죠." 그는 간단하게 말한다. "계획 같은 걸 가졌던 게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한껏 즐기는 이기적인 이유로 떠난 거지." 1960년경, 그는 멸종한 백코뿔소를 밧줄로 붙잡았고 백코뿔소들을 국립공원에 풀어놓으려는 멸종위기 동물보호를 위한 활동에 관계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 풀어놓자마자 코뿔소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곧장 되돌아가고는 했다. 그리고 1967년경에 그는 (라이프) 매거진의 커버 스토리를 위해 코끼리를 찍었다. 그 사진들은 문명의 손길이 아직 파괴하기 이전, 아프리카 최후의 모습이었다.

젊은 시절 그가 경험한 사라져가는 아프리카에 대한 기억들. "그곳에서 시간은 정말로 느리게 갔어요. 끝없는 암녹색의 지하세계가 무한히 지속될 것 같았고... 사자와 표범들, 그리고 독특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기묘한 개척자들이 모이는 나이로비의 거리를 한가하게 거닐곤 했죠. 현지인들은 파자마를 입고 영화를 보러갔고..." 그런 기억들은 그림과 아쉬운 만큼이나 나른하고 생생하다. 그는 그의 목장은 이제 거의 알아볼 수 없다고 한다. 나이로비의 인구급증으로 교외의 슬럼가, 주차장, 깎아대는 개들이 그곳까지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광활한 공간은 사라졌다. "동물들은 겁을 집어먹고 소심해졌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낭만적인 사고들은 상실돼버렸죠. 아프리카만의 색깔, 아프리카가 신으로부터 받은 은총도 잃은 지 오래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혐오스러워졌어요. 강도질 당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면 찾아갈 만한 곳이 못 돼요. 무엇보다도 슬픈 일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자연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자연역사박물관이 오히려 낫다고 할까?" 그는 '호그 랜치'를 세운 이래로 지속적으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과 야생지역 때문에 몸서리치게 위화하면서 지나치게 지구환경에 대해 우려하는 무리에 빠져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연을 경외하는 고귀한 아웃사이더로 남아 있다.

"호그 랜치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장면이 있던 곳이었어요. 엔공 언덕에서 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죠. 혹태웨이 매틀과 아프리카 영양 매틀, 기린들, 얼룩말들을, 나는 애꾸는 벨벳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표범이 내 텐트 옆에 원숭이가 살고 있는 나무에서 그놈을 낚아채가 버렸습니다. 그 표범은 아마도 그 상황을 몇 주에 걸쳐 계획했을 거예요."

는 말을 했을 것이다.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세상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이거든." 그가 즐깁니다. "인간은 기생충들이죠. 우리의 욕심으로 지구상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으니.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대해 전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테마는 불길한 생존이 되겠죠. 우리는 바퀴벌레처럼 살게 될 거야." 그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미소를 보내고 링크를 하고 메시지를 끄적여대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그 모두가 진지하면서도 가벼웠다. 예를 들어, "헤이, 어젯밤에 안 보이던데." 하고 그가 나른하고 육감적으로 보이는 금발 모델에게 큰소리로 이하는 척했다. 그녀가 가까이 오자 그녀의 답배를 낚아채면서 그는 말했다. "우리가 찍은 그 사진들 아주 잘 나왔어."

스타일 아이콘으로서 그의 위상은 어떻게? 제작된 뉴욕 패션 위크에서 로베르트 카발리와 알렉산더 맥퀸이 그의 호트러진 듯 우아한 사파리복장에 경의를 표했듯이, 그는 유명 디자이너들에 의해 '당대의 뮤즈'로 거

론되곤 한다. "그런 말은 좀 이상합니다." 비어드는 말보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무비스타 같은 미소를 만면에 띠면서 말했다. "디자이너들은 언제나 내 사진 아카이브들을 참고해왔어요. 어떤 디자이너는 다른 디자이너들보다도 더 부끄러울 줄 모르고 이용했죠. 하지만 나는 그런 피상적인 세상을 전혀 즐기지 않소. 나는 패션을 건전한 의미에서 전혀 존중하지 않으니. 소로 말에 동조하고 있다고 할까? 그는 파리에 있는 원숭이 두목이 어떤 여행용 모자를 쓰면 미국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그와 똑같은 모자를 쓰는지 의아해했지."

처음부터 그의 인생은 낭만적이었다. 그의 삶은 피츠제랄드의 소설 장면들이 그대로 현실로 튀어나온 것처럼 진행되었다. 아름다운 금발머리의 이남자는 미국적인 여행과 위대한 천조들 사이를 오가며 살았다. 사실 그의 중조할아버지이자 철도 재벌인 제인스J. 힐은 '미국을 건설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위대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개츠비)에서 신화화된 인물'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세상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 ... 인간은 기생충들이죠. 우리의 욕심으로 지구상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으니.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전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테마는 불길한 생존이 되겠죠. 우리는 바퀴벌레처럼 살게 될 거예요."







비어드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사람이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그는 사랑스러운 아이 같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반짝이는 존재가 있는 사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세주의자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고 말한다. 현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병폐는 종종 그의 대화에 떠오르고 색깔을 주는 주제다.

"우리는 꼭 코끼리 같아요." 그는 황폐한 평야에 의지할 데 없이 서 있는 두 마리의 코끼리가 있는 사진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우리는 자신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유일한 존재이며 교활하게 우리가 야기한 손상된 세계에 적응하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는 케냐의 차보 국립공원(Tsavo National Park)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굶주리던 코끼리들이 거의 모든 나무를 먹어치우는 바람에 자기 서식지를 황무지로 변하게 만들어 결국 다 같이 종말을 맞이한 상황을 비유로 들려 말했다. "모든 존재들은 제한 인자(생존과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들)들이 필요할 때까지 팽창합니다." 그는 뉴욕의 특유의 빠른 어조로 계속 말한다. "에이즈는 전형적으로 인구 밀도와 관련된 병이죠. 암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에볼라, 모두가 자연이 자연의 밀도에 균형을 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타임) 저는 사람들이 죽이는 코끼리에 대한 기사를 냈죠. 그것도 결국 같은 형상이고, 우리의 행동에도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잖아요? 가령 이라크 문제라든가, 학내 총격사건처럼 말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자원에 대한 탐욕과 싸움은 작은 제3세계 국가들이 지닌 자원들을 빼앗기 위해 그들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하는 거죠. 이미 자신들의 자원이 바닥나고 있는 걸 알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전쟁을 일으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인간이 '괴물 같은 종'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존재로부터 무엇이든 나올 때까지 짜내는 지독한 동물입니다. 인구에 대한 무심함은 혐오스러운 정도죠. 평균적인 케냐의 여성은 여덟 명을 낳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모든 도시들은 생식하는 코뿔뿔어리들로 가득 찼어요. 1930년 10억의 인구가 되기까지 8천만 년이 걸렸습디다. 그런데 이제는 10년마다 10억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우리 모두 깊이 쌓인 동덩어리에 앉아 있는 꼴이죠. 그런데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조만간 우리는 저금 형편에 걸맞은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의 작품은 예리하고 깊은 울림을 준다. 그는 전혀 감상적인 사람입니다. "굶주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구조 활동에 급하게 뛰어드는 무지한 자선들, 즉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자연 활동에 대해 무척이나 신랄하다. "확실치 자연은 가차 없어요. 사자는 시슴을 죽이고 나무구리들은 돌덩이로 거북이의 껍데기를 박살내요. 고래는 해변으로 쓸려나오고, 그러나 그건 자연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인간만이 자연의 법칙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의 현실들을 제거해 왔는데, 문명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주장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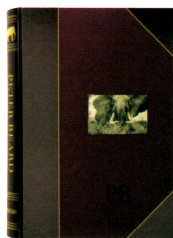
잠시 그가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자리를 뜬 동안에 나는 (The End of Game)의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이 책은 비어드를 국제적인 컬트 인사로 만든 수많은 사진이다. 이 책은 1965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그때로부터 계속 재간행되고 있는 혁명적인 책이다. 차보 국립공원에서 5만 마리의 코끼리들을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학살한 파괴적인 연대기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오늘날 여전히 읽히고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인류에게 불안함을 준다. 비어드는 자신이 환경 운동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주로 흑백 사진과 거친 세피아로 효과를 낸 그의 사진들은 아프리카 야생 자연의 부패와 죽음을 담은 기록이다. 차타, 가젤, 기린들이 벨기엣은 아프리카 부랑민들과 함께 우아하고 느긋하게 걷는 모습을 담았는가 하면 얼룩말 사체처럼 소름끼치는 사진도 있다. 또 공중에서 찍은 사진 중에는 뜨거운 땅에 코끼리의 사체와 뼈들, 그리고 밀렵꾼들이 죽인 코끼리 배고 있던 완벽한 모습을 갖춘 코끼리의 태아가 보인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성스러운 것은 남아 있지 않아요." 그는 말한다. 그의 목소리에 가벼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사진을 찍는 것은 돌을 수집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걸러 넘어진 건 순전히 우연이지만 그건 땀이든 가마야 같은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라고 그는 다시 새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말한다.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이 삶이 얼마나 사소한 의미 없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가고 있는 자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선행하게 정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1**

피터 비어드 컬렉션

비어드는 말보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무비스타 같은 미소를 만면에 띠면서 말했다. "디자이너들은 언제나 내 사진이 카이브를 참고해 왔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피상적인 세상을 전혀 즐기질 않소. 패션에 대한 소로의 말에 동조한다고 할까?"

사리 제리(TASCHEN) 출판사



피터 비어드는 반세기 전 케냐에서 피라미드를 발견했다. 그곳이 자유로워 변하는 과정을 담은 그의 작품집이 지난 봄 타에서 새로운 에디션으로 다시 출판됐다

